



Unies Headquarter Office Remodeling



자사의 성격을 반영한 공간이아말로 사무실 디자인에 가장
안성맞춤이다. 국내 아웃소싱Outsourcing 회사인 유니에
스UNIES의 본사는 전체적인 배치와 인테리어에 자사의
지향점을 고스란히 담아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공간 속에
완벽하게 풀어냈다.

에디터 국명희 haru@decojournal.co.kr
사진 신경섭
설계 유주현
인테리어 유주현건축사무소
시공 homezykorea
감리 유주현건축사무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영일빌딩 11층
자료제공 유주현건축사무소(jhyana.com)

Unies Remodeling은 공간계획부터 사무 가구까지 총체적으로 디자인된 결과물이다



1, 2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대기 홀은 넓은 공용공간을 제공하고, 인포데스크, 휴게공간, 유니텍스, 대교육실 그리고 소회의실과 인접해 답답하지 않은 개방된 장소로 정리했다. 실용적인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유니텍스와 출입구의 세인보드 등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포항적 오브제 또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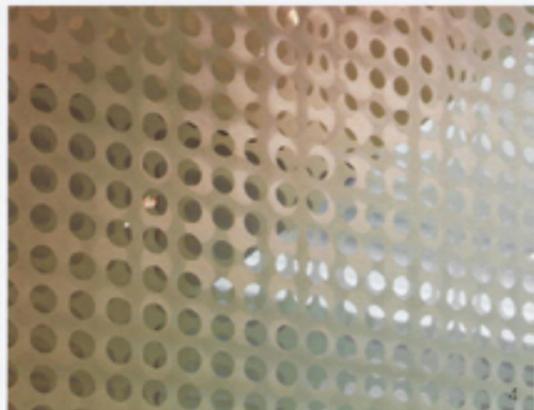
Office Space Reflecting Corporate Identity

최근 기업이미지통합(CI)이 강조되면서 사무공간에도 기업이미지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오피스 건물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업의 심벌모찌 상징화하고, 사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기본 이념이나 윤리를 각인시킨다. 이에 따라 유니에스UNIES 본사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가 유주현도 회사의 성격을 공간에 반영했다.

국내 최대 아웃소싱Outsourcing 회사인 유니에스UNIES의 지향점은 경계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 유니에스의 CI는 i를 강조하는데, i는 사람을 의미한다. i의 원형은 사람의 두뇌를 은유하며, 회사의 인재상을 강조하는 것. i의 o를 전체 공간의 메타포Metaphor로 설정하고 역동적이며 무한히 확장하는 내부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o 패턴이 에칭Etching된 유리를 내부 칸막이벽에 적용해 반사효과와 투시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벽면과 빛에 다르게 반응하는 두 장의 유리를 통해 다양한 착시효과를 유도함으로써 풍부한 벽체를 제시했다. 에칭 패턴 유리와 거울의 조합은 물리적 공간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100명 규모의 본사 직원이 1만2천명의 파견자를 관리하는 아웃소싱 회사의 실제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3, 6. ○ 패턴이 여장된 유리를 같이 사용해, 반사효과와 투시효과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했다. 왜곡된 ○ 패턴의 반사효과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며 변화 있는 벽면을 만든다. 빛이 다르게 반동하는 두 장의 유리를 통해 다양한 착시효과가 나는 풍부한 벽체를 만들었고, 개방감과 업무 효율성 모두를 높였다.
- 4, 5. 유니에스의 C는 I를 강조하는데 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I의 원형은 사람의 무릎을 은유하며 유니에스의 인재상을 강조한다. I의 ○를 내부 공간 전체에 배치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라 투명도와 재질감이 변해 통일성 있지만 변화가 많은 공간을 만들었다.



약 330평 크기의 본사는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 영역과 직원들의 업무 영역으로 나뉜다. 대기 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영역은 선릉과 도시의 변화를 계절에 따라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북쪽 경계까지 밀어 창과 면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인포데스크, 탕비공간, 유니박스, 대교육실 그리고 소회의실과 인접해 담당하지 않은 개방된 공용 장소로 정리했다. 업무공간은 회사 조직도를 공간적으로 풀어 배치했다. 본부별, 팀별 위치를 업무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방문자와 조우할 수 있도록 통선을 분리하여 명쾌한 공간 질서를 계획했으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만족시켰다. 리모델링할 때, 새로운 사무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법. 매우 낮은 천장고(2.5m)와 사용 인원 에 비해 좁은 공간은 건축과 가구를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다. 결국 능률적인 업무와 직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사무 가구와 시스템 천장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낮은 천장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에 사용하는 역세스플로어 대신 전기, 통신 설비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부족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버헤드 수납장이 달린 오피스 가구 유닛을 주문 제작했다. 이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기, 통신 설비와 통합 디자인 하여 어색할 수 있는 설비요소를 중화시켰다. 팀별로 구획된 목재마감의 시스템 천장 유닛과 사무 가구는 세트를 이뤄 프로그램과 건축 그리고 가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공간을 완성했다. 개별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 또한 공간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모두 맞춤 제작했다. 대회의실의 테이블과 대기 홀의 테이블, 그리고 통합정보관리센터인 유니박스 모두 전체 질서와 개별 공간의 개성을 고려해 조율하여 제작함으로써 미적, 기능적 측면을 충족시켰다. 이는 유니에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향점과 일치하며 인테리어 공간이 자사의 기업 철학을 대변하도록 한 결과이다. 2



7, 8, 9 낮은 천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에 사용하는 액세스플로어 대신 전기, 통신 설비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해 현장 조건에 맞게 정리했다. 또한 부족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버헤드 수납장이 일련 오피스 가구 유닛을 디자인했다.





10



12

10, 11, 12 대회의실, 디렉터실, 유나박스, 각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는 공간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제작의 미적, 기능적 측면 모두를 충족시켰다.



11



(PLAN)